

“컨벤션·체험·문화·휴양 지구로 나눠 활용”

전발연, 여수 엑스포 사후 운영 방안 보고서

편의시설 보완·주제 기능 맞는 공간 조성

여수세계박람회 폐막(8월 12일) 후 박람회장을 컨벤션 및 비즈니스 중심지구, 해양문화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사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진철) 신동훈 연구위원은 이 연구원의 간행물인 '리전인포' 제280호에 '상하이세계박람회 사례를 통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 박람회 사후 활용은 여수는 물론 남해안 권역의 개발을 촉진해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박람회 부지를 ▲컨벤션 및 비즈니스 중심지구 ▲연구·체험·교육지구 ▲해양문화지구 ▲휴식·휴양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지

구별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주제의 기능에 맞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또 상하이 세계박람회 이후 박람회 부지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하철 노선 확대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해 회의와 관광, 전시회 등 MICE 산업을 육성한 사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세부적으로 컨벤션 및 비즈니스 중심지구인 한국관은 박람회 기념관, 박람회홀은 컨벤션센터, 국제관(A, B, C, D관)은 업무·상업·편의시설,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는 박람회 상징거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구·체험·교육지구인 에너지파크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교육시설, 국제기구·NGO관은 해양관련 연구기관, 스카이다워는 전망·체험시설, 국제관(E)는 전시·교류·체험관, 해양재난안전센터 등으로 꾸미는 방안을 내놓았다.

해양문화지구에는 포함된 Big-O는 박람회 부지 랜드마크, 주제관은 해양과학관, 기후환경관은 소풍센터, 지자체관은 해양문화관련 예술품 판매점 및 해양레저장비 전시·판매장 국제해양관광센터, 해양생물관은 아쿠아리움, 해양산업기술관은 엑스포 박물관, 해양명도시관은 주차장

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동측 게이트 주변에는 예술마을, 해양힐링센터, 헬스케어타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식·휴양지구를 조성하자는 복안도 제안했다.

신 연구위원은 “여수박람회 사후에도 박람회 주제와 효과를 연계한 시설물을 배치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복합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제해양위원회, 국제해사기구, 동아시아 해양회의 등 해양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해양레저 관련 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에도 파급효과를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7인회’ 부인 박근혜 진실성 구멍 뚫렸다

박지원 맹공... 공안정국 조성 작시 않을 것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29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자문그룹 7인회가 엄연히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하니 그분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박 전 위원장의 측근, 특히 젊은 그룹에서 굉장한 열거를 한다”며 “7인회가 지난번 대선 때처럼 크게 역할을 해서 좌지우지한다면 굉장히 열거가 된다는 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용갑 전 의원이 저에게 ‘원조 종북좌파’라며 색깔론을 제기하며 비판했는데, 그를 수구꼴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 한 사람 뿐일 것”이라며 “저는 특정한 안보 속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통일을 하자는 아주 건설한 통일론자”라고 반박했다.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네거티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위원장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여당 후보면 야당으로서 검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저수지 보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박 전 위원장의 진실성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의 종북세력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은 측근 비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기 말에 때 아닌 색깔론을 가지고 나왔다”며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이런 발언에 ‘역시 이명박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이어 “만약 국내 종북세력이 더 문제라면 지난 4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왜 국민이 열거하는 종북세력을 양성했는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혹시 검찰에서 대통령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간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쿠아리움 3D로 즐긴다

입체영상관 설치

여수세계박람회 최고 인기 전시관인 아쿠아리움의 감동을 3D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박람회 조직위는 29일 “아쿠아리움 주변에 아쿠아리움 3D 입체영상관을 설치해 오는 6월 9일부터 아쿠아리움 관람 기회를 얻기 어려운 노약자 등에게 아쿠아리움 3D 입체영상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쿠아리움 3D 입체영상관은 KBS에서 제작한 고화질의 3D 입체영상을 통해 바다 속 아름다움과 해양생물의 움직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귀여운 얼굴로 반갑게 관람객을 맞이하는 러시아 흰고

래 ‘벨루가’와 바이칼 물범 등 세계적 멸종 위기의 희귀종 및 다양한 해양생물을 500인치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3D 입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3D 입체영상관은 아쿠아리움과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에 대한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아쿠아리움 주변의 혼잡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 박영대 제2사무차장은 “아쿠아리움 내 각종 해양생물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보기 힘든 생동적인 모습을 화려하게 담아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여수세계박람회의 최고 인기 전시관인 아쿠아리움의 생생한 감동을 3D로 즐길 수 있는 입체영상관이 문을 연다. 사진은 아쿠아리움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는 가족의 모습.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빛의만평

-김중두



솔직히 이게 더 걱정입니다

오늘의 여수엑스포

박람회를 즐기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단연 천막극장에서 펼쳐지는 ‘엑스포 가요 페스타’ 공연이다. 유명 가수들이 선사하는 생생한 라이브 공연은 박람회 관람으로 지친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하다. 오늘 천막극장에는 시원한 창법으로 무대를 사로잡는 가수 김경호가 초대됐다.

- ◇엑스포 가요 페스타-김경호(천막극장·오후 8시 20분)
- ◇국가의 날-니키라과(다목적홀·오전 10시)
- ◇칼보디아 전통춤 공연(해양광장·오전 11시)
- ◇아트헨티나 댄스 공연(해양광장·오후 3시 30분)
- ◇이탈리아 에우제니오 베나토 콘서트(엑스포홀·오후 6시)
- ◇에리트레아 전통춤 공연(해양광장·오후 6시)
- ◇세계 최대 범선 ‘카이오마루’ 전시(해경부두·오전 11시)

- ◇어제의 관람객 수 = 3만6557명
- ◇누적관람객 수 = 82만9717명

가요계 별들 여수에 뜬다

초여름, 여수 밤바다에서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초대형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29일 “김경호, 인순이, 박완규, 김조한 등 국내 실력과 가수들의 콘서트와 쿠라키 마이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 김경재가 출연하는 ‘한일 교류 콘서트’가 빅오(Big-O) 해상무대에서 잇따라 열린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합창 지휘자 윤희환 음악감독과 전국 1004명의 어린이가 출연하는 MBC ‘천사들의 합창’ 등 대규모 스케일의 공연도 빅오 무대를

찾는다. 이 공연들은 5월 말부터 6월 첫 주까지 이어진다.

또 엑스포홀에서는 30일 오후 6시 이탈리아 남부 음악을 현대화한 음악가 에우제니오 베나토의 콘서트가 펼쳐지고, 31일에는 바호 폰도 콘서트가 열린다. 바호 폰도는 영화 ‘브로크 백 마운틴’으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영화음악가 구스타보 산타올라야가 이끄는 일렉트로닉 댄스밴드로, 6월1일 해상무대에서도 공연을 선보인다.

전 세계 관객을 열광시켜 온 미국

다채로운 문화행사 열려

美·伊 등 초대형 공연도

의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음악 공연 ‘오션블라스트피버’도 다음달 4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박람회장에서 공연한다.

6월 중순부터는 박람회장에 가요계 별들이 총출동해 팝의 향연을 벌인다. 슈퍼주니어, 씨엔블루 등 세계를 뒤흔든 K-POP 가수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요 페스티벌인 엑스포 클래식 페스티벌은 6월 중순부터 8월 12일 폐막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 (062) 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남포로57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일본 카멜리아로 떠나는 온천 즐기세요!!

- ★ 구중산 빌라형동나무온천 (출발확정) 4일 ₩349,000
출발일: 6/18, 20, 23, 24, 27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광주-부산 수송
- ★ 구중산 철쭉 축제 동반 4일 ₩399,000
출발일: 6/18, 20, 23, 24, 27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 ★ 일본 전통료칸 스키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일 ₩499,000
[폭격] 출발일: 6/18, 20, 23, 24, 27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 ★ 나가사키, 유령섬의 하우스템보스 4일 ₩519,000
출발일: 6/24
불포함: 기사&가이드팀(₩20,000), 광주-부산 수송

항공으로 떠나는 일본 즐기세요!!

- ★ [폭격]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교토,와카야마 4일 ₩899,000
출발일: 6/27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 ★ [실속]오사카, 교토, 고베 3일 ₩699,000
출발일: 6/27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기사&가이드팀

유럽 유럽으로 떠나자!

- ★ 서유럽 3국 8일 ₩2,890,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이탈리아 투어리스트 텍스
- ★ 서유럽 5국 10일 ₩3,190,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이탈리아 투어리스트 텍스
- ★ 안탈라/터키 일주 8일 ₩2,290,000~
불포함: 공동경비
- ★ 스페인/포르투갈 10일 ₩3,290,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공동경비

중국

무안에서 떠나는 홍콩/마카오/심천 (상해경유)

- 3박 4일 상해/홍콩/심천 ₩849,000~
- 3박 4일 상해/홍콩/마카오 ₩859,000~
- 4박 5일 상해/홍콩/심천/마카오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중국여행~

- ★ 무안-북경/평요/면산 4일 ₩869,000~
- ★ 무안-북경/평요/면산 5일 ₩919,000~
- 불포함: 개인경비,중국단체비자,기사&가이드팀
- ★ 무안-북경 백선산, 공중초원, 비호곡 5일 ₩1,079,000~
출발일: 7/6
- ★ 무안-북경/만리장성 4일 ₩429,000~
- ★ 무안-북경/만리장성 5일 ₩499,000~
- ★ 무안-상해/장가계 4일 ₩899,000~
출발일: 7/2, 4, 9, 11
- ★ 무안-상해,장가계,원가계,주자각 5일 ₩1,299,000~
- ★ 무안-상해,항주,황산 5일 ₩7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120,800),단체비자,가이드&기사팀

청주/연길 전세기(KE) [6/30~8/29(수/토)] 출발

- ★ 백두산(북파) 3박5일 ₩1,080,000~
- ★ 백두산(북파/서파) 3박5일 ₩1,110,000~
- ★ 백두산(서파/북파) 4박6일 ₩1,150,000~
불포함: 가이드&기사팀

동남아

무안에서 떠나는 방콕/파타야 3박5일(상해경유)

- 알뜰 ₩839,000~
- 실속 ₩889,000~
- 품격 ₩98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매너팁

무안에서 떠나는 싱가포르/바탐 3박 5일 (상해경유)

- 3박5일 상해/싱가폴(1박)/바탐(2박) ₩1,149,000~
- 3박5일 상해/싱가폴(2박)/바탐(1박) ₩1,219,000~

(10명 이상 출발가능) 불포함: 개인경비, 인도네시아 입국비자(10\$), 매너팁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행계약 가입예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별 가입(예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규제,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차, 버스, 지하철 *경비보험(단, 기사/가이드는 동사, 선박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